

#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실업급여 지급자도 2.1만명 ↑

고용노동부,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제조업, 내국인만 2.4만명 ↓... 건설업도 24개월째 내리막  
실업급여 지급액 1조1121억원... 신규 신청도 11만1000명  
1인당 일자리카수는 0.4개... "제조업 어려워진 영향인 듯"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조업 가입자 수는 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 가입자 수는 24개월째 감소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9만9000명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8만명(1.2%)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2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올해 4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꾸준히 18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로 보면 고용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우선 제조업 가입자 수가 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도 6월 1000명 감소에서 지난달에는 5000명 감소로 늘었다.

당초 제조업은 202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면서 꾸준히 가입자 수가 증가했지만,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은 2023년 10월부터 감소 중이다. 지난달에도 내국인이 2만4000명 감소하고 외국인이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건설업 역시 1만9000명 줄면서 2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9만명 줄면서 2022년 9월부터 35개월째 감소 중이고 40대도 3만3000명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건설업(-1만4000명), 제조업(-9000명), 도소매업(-9000명) 등에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8만 명이 늘면서 노년층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4만8000명, 30대는 7만 5000명 각각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1000명(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21억원으로 354억원(3.3%)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93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제조업(7400명), 도소매업(28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복지업(-2300명), 공공행정(-1500명), 숙박음식업(-1000명) 등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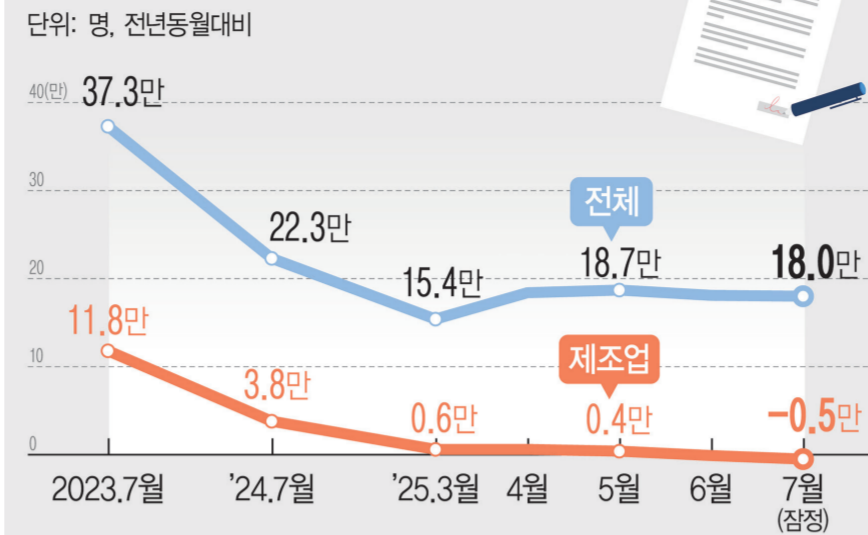
다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0.6%)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와 관련해 전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를 보통 120일-270일간 받는데, 올해 2월 240일에서 270일까지 받는 장기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여기에 제조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당분간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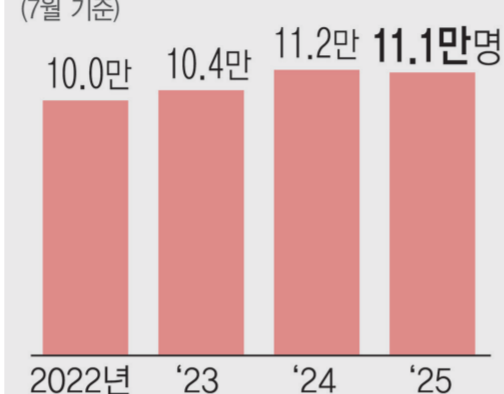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40이었다. 0.51이었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폭 낮아졌다.

구인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3만4000명(-16.9%)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1만1000명으로 2만1000명(5.5%)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가 줄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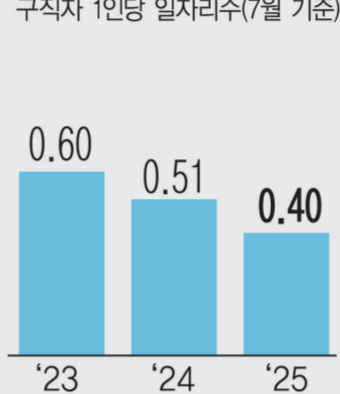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추이



## 실업급여 신규 신청 추이



## 구인배수



자료: 고용노동부

제조업 쪽 구인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구인배수가 낮아진 것은 제조업 경기가 많이 부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현재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민생회복지원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제조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폭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광양경제청, 여름 휴가철 안전정보 전광판 집중 송출 폭염·물놀이 등 생활안전 정보로 귀성객 맞이

광양환경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제청)은 여름 휴가철에 맞춰 광양항 인근 대형 홍보 전광판을 활용한 여름철 안전 및 생활정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폭염 대응요령, 물놀이 안전수칙, 감염병 예방, 교통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 콘텐츠를 8월 한 달간 집중 송출하며,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광양만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2022년 11월 가동 이후 꾸준히 운영 중인 GFEZ 전광판은 현재까지 총 1,000건 이상의 개발계획, 투자정보, 공공 콘텐츠 등을 송출해오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에는 특히 지역 내 유관기

관 및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익적 성격의 메시지를 확대 중이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여름철 광양만권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공익 목적의 영상 콘텐츠를 전광판에 게재하길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중의 GFEZ 전광판은 현재까지 총 1,000건 이상의 개발계획, 투자정보, 공공 콘텐츠 등을 송출해오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에는 특히 지역 내 유관기

## 전남도, 폭염 대응 시설하우스 냉방·차광시설 지원 고온 민감 작물 피해 최소화·생산비 절감 등에 3억 7천만원

전라남도는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 고온에 민감한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취약한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형 냉방시설과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여수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등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로, 에너지 절감형 냉방시설 설치, 차광·차열 자재와 차광막을 지원한다. 차광막과 차열제는 시설하우스에 유입

되는 태양광을 차단하고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폭염에 따른 작물 생육 장애, 품질 저하, 생산량 감소 등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에너지 절감형 냉방시설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내부 온도를 관리할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농업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저감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름철 안정적 작물 생산 기반을 마련토록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를 보통 120일-270일간 받는데, 올해 2월 240일에서 270일까지 받는 장기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여기에 제조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당분간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40이었다. 0.51이었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폭 낮아졌다.

구인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3만4000명(-16.9%)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1만1000명으로 2만1000명(5.5%)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가 줄어든

## 광주시,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3000만원 지원

### 기술력 있는 유망 청년기업 8곳 발굴... 제품 고도화·투자 추진

진 중인 청년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참여 열기가 높았으며, 총 43개 기업이 접수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한 투자설명회(IR) 평가대회를 통해 창업기획자(AC) 및 투자사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성과 기술력, 투자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교해상도 하이브리드 광

학렌즈 모듈 개발기업 '썬캔디옵틱스'(대표 오지현) ▲아동발달 데이터관리 솔루션 개발기업 '썬윙스'(대표 최진영)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솔루션 개발기업 '바이옴랩'(대표 주양현) ▲젯봇 변호사 및 변호사 추천 연계 플랫폼 개발기업 '썬휴먼러브'(대표 김수지) ▲자동차 보안 솔루션 개발기업 '썬플랫폼토리'(대표 김성진)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 플랫폼 개발기업 '노바링크'(대표 김형우) ▲에코(ECO)

그린 스마트가로동 개발기업 '썬에코파우더'(대표 홍주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핫플레이스 여행 플랫폼 개발기업 '썬핫플'(대표 조성진)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에 제품 고도화, 기술 시험 인증,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성장자금을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술개발 외에도 기업 맞춤형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공개 투자설명회(IR) 행사,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청년창업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사업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화자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8곳에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기술고도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을 발굴해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기술 고도화와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4개 기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규모를 2배 늘려 8곳으로 확대했다.

광주에 사업장을 두고 기술사업화를 추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